

문화와 일러스트레이션의 역할 —'88년도 회갑 기념전을 마치고—

(1988. 8. 30~9. 4. : 신세계 미술관)

金 敦 滿

産業디자인科 教授

오늘날 Communication Design 분야에서 Illustration은 어느 Media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이라 하면 그래픽 디자인의 부수적인 한 요소로서, 또는 과거의 삽화나 문장의 설명도로서 시작 표현의 일부분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과 적용 범위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기능 영역이 현저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출판계나 광고계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많은 일러스트레이터들에게 격려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폭넓은 영역에서 보다 깊은 사고와 고도의 테크닉을 필요로하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영역을 서서히 특정지워 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육의 교과 과정에 일러스트레이션 과목이 독자적 위치에 놓였으며, 이러한 일러스트레이션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그 활동 범위에 다양성을 띠게 되었다.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표현과 적용 범위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신문, 잡지, 포스터, 카탈로그 등의 인쇄 매체는 물론 TV, 영화의 영상, 수공예, 도자기, 편물, 실내장식 그리고 육의활동등 폭넓은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그 기법은 손으로 그리는 수법에서 판화, 사진, 입체표현, 컴퓨터 일러스트레이션 그리고 과학의 이기 중 하나인 로보트가 그리는 일러스트레이션까지 그 표현이 다양화 되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들의 사고나 표현들이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에 있어서는 보

다 인간적인 친밀감과 보다 개성적이고 특유한 기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은 개성과 독자성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앞장서야 한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분류에 있어 개성적이고 회화성이 강한 표현과 메커니즘의 설명화 및 구조화와 같이 비개성적인 표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디자인에 있어서의 개성은 순수미술 미술가의 개성과 같이 자유로운 자기 감상이 아니고 뚜렷한 목적 의식의 기능적 제약 안에서 그 개성이 허용되어진다. 따라서 대중의 감정과 인간미가 풍부하며 대중의 이해와 공감으로 디자인이 갖는 인간적인 기능과 사회적인 기능을 일원화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보급만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가질 수 있는 개성이며 창조이다.

디자인 활동에 있어 디자이너는 시대적인 감각 및 테크닉 외에도 한 인간으로서의 삶, 즉 생활의식과 사회의식의 배경으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디자인에 관한 감각, 의식, 경험, 기억, 지각 등을 종합하여 디자이너는 개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자기 개성을 주장할 수 있는 미디어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보여지는 대상뿐 아니라 생략이 있고, 과장이 있고, 더 깊게는 幻想이 있고, 寓話가 있고, 詩가 있고, 정서가 있고, 인간성이 있기에 더욱 친밀해지며 애착이 간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의 영역을 창조한다는 행위로 어느 미디어 보다 중요한 가치와 흥미있는 창작활동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작가인 돈 존슨(Dong Johnson)의 말

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사회의 유행, 꿈, 인간의 이상을 독창성이 강한 이미지로써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보다 새로운 테크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은 그나라 문화를 반영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보편 타당성이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그나라 문화의 반영이라는 말은 현대 일러스트레이션의 방향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고유의 문화가 있다. 오랫동안 같은 자연 조건에서, 또 같은 역사적 운명 속에서 이룩된 사회에서 문화는 형성된다. 현대 사회는 도시화의 물결로 인하여 농촌도 어촌도 도시적인 사고와 도시적인 생활 양식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생활이

도시화, 기계화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의 ‘열’과 ‘피’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멋과 아름다운 풍습, 순박한 정서와 전통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서정과 해학 그리고 전통적인 장면에 새 생명을 불어 넣고, 보여지는 대상을 묘사하려는 표현보다는 작품속에 생략이 있고 우화적인 분위기와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시각화하고자 펼자는 노력하고 싶다.

’88년은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일러스트레이션이 우리나라 이미지 부각이라는 큰 역할과 함께 문화적인 홍보에 있어 일익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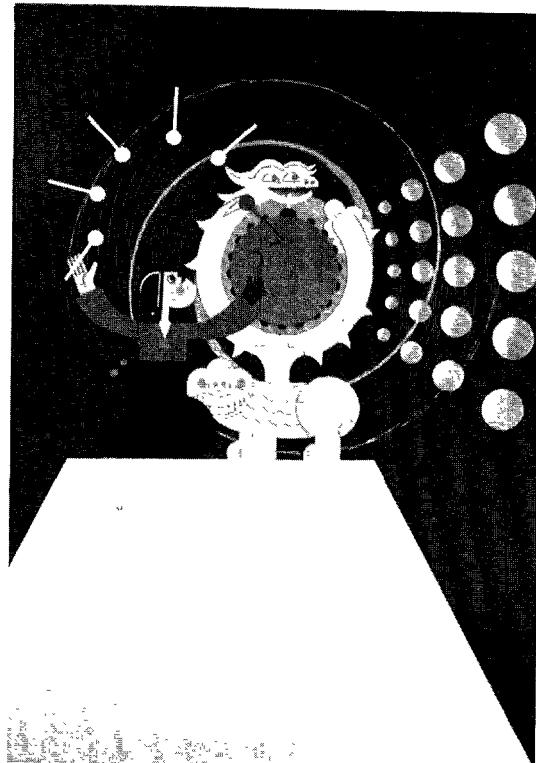
따라서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우리 일러스트레이션 분야는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여 국제 간의 시야를 더욱 확대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알려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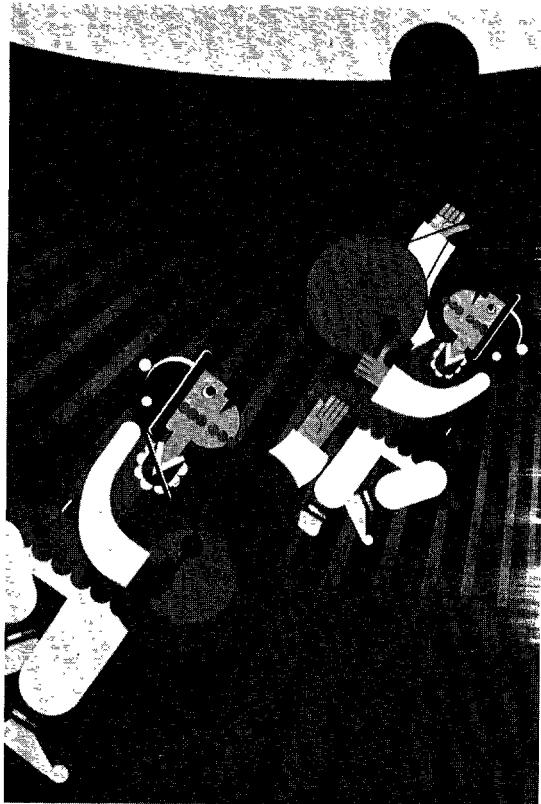
 SEOUL 1988

1988
Year
of the
Olympics
JOHN DE LA
KEURIGE ROTHMANS
SOMA 1988
GAMES OF THE
XXIV OLYMPIC
GAMES 1988

88서울올림픽 문화포스터 1987



일러스트레이션 : 북춘 1986



한국관광포스터 : 풍년 1985
국제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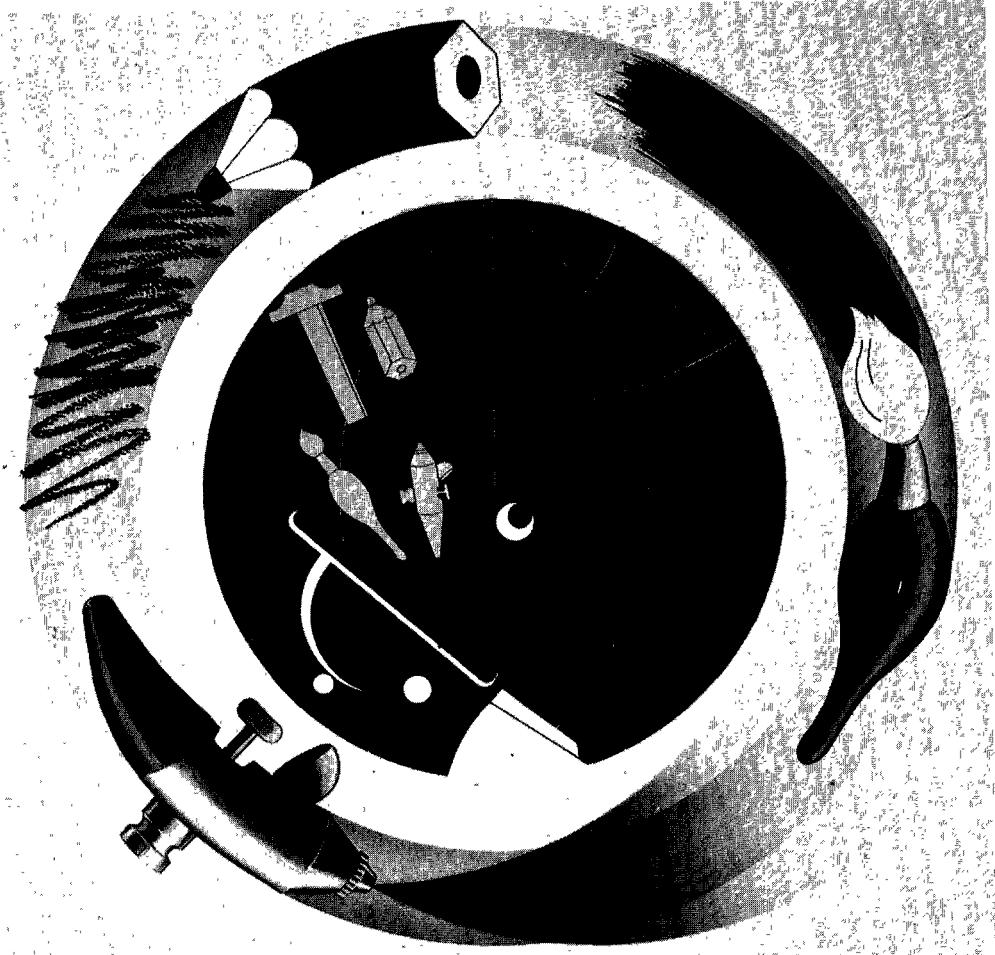


KOREA
International poster exhibition
1984

한국관광포스터 : 음악제 1984
국제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출품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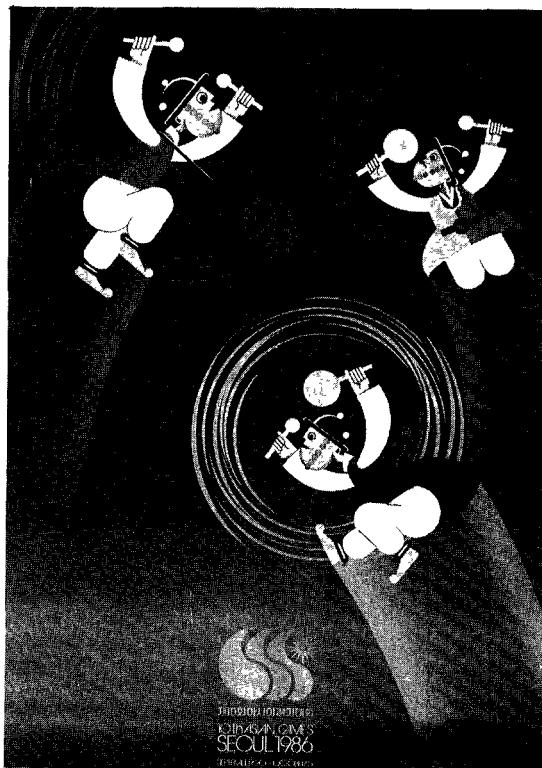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 : 농민의 기쁨 1988



1988
International
year
of
Graphic
Design
25th
Anniversary
of
icogra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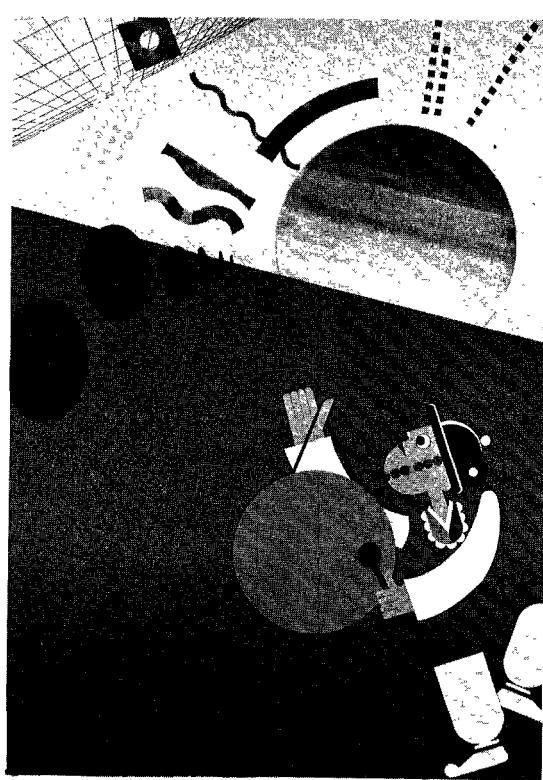
ICOGRADA 25주년 기념포스터 1987



제10회 아시안게임 문화포스터 1986



일러스트레이션 귀가 1986



개인전포스터 1988